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문예재단 이사장 공석 3개월

최장 기간 공백 ... 내년 스무 살 준비 어떻게

중도 사퇴 차기 공모 진행 1차 선임 불발 장기화 사태 총선 이후 재추천 절차 본격 후보 추천할 임원추천위는 7명 모두 새로 구성 예정

'예술 꽃 활짝 피우고 문화 향기 가득한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이름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비전이다. 여기에는 "이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조직과 사업을 더 잘하게 하는 데 무게를 두고자 한다"며 "그것은 조직과 사업을 보완, 정교화하고 제주 문화 정체성을 확장해나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예재단은 지난 1월 10

일 이래 이사장직이 비어있는 상태다. 직전 9대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문예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공모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이사장을 3개월 넘게 뽑지 못한 탓에 성명이 없는 '문예재단 이사장'으로만 포부가 올라갔다.

▶이사 중 연장자 직무대행도 최장수 기록=8대 박경훈 이사장이 2018년 8월 5일 2년 임기를 마친 뒤 9대 고경대 이사장이 그해 9월 27일 바통을 이어받기까지 두달 정도가 걸렸다. 그 당시에도 8대 이사장 임기 만료 이전에 제주도가 연임 여부를 확정짓지 않으면 퇴임 뒤 차기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공백이 생겨났다.

지금은 그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 공모를 거쳐 2명으로 추천된 이

사장 후보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재추천을 요구한 배경이 크다. 도내 다른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선 재공모 사례가 있었지만 2001년 4월 창립한 문예재단에서 이사장 재공모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예재단 이사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직전 이사장 사임 이후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지만 지금까지 오래갈 줄 몰랐다. 그래서 이사장과 똑같이 상근, 상임직으로 문예재단을 이끄는 직무대행은 역대 최장수의 기록을 써가는 중이다.

▶창립 20주년 중기 실행계획 세울 때=문예재단은 지난해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 활동을 이어가는 등 현안이 놓여있다. 기관 내 이슈를 처리하는 일에 직무대행의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문예재단은 1년 뒤인 내년

4월 25일이면 20주년을 맞는다. 청년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앞두고 5년~10년 중장기계획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사장 공백이 가져온 문제는 문예재단의 새로운 앞날을 그리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한다면 마냥 이사장 선임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재추천 절차는 4·15 총선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예재단은 이사장 후보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기관·단체에 공문을 띄웠다. 직전에 후보 추천을 맡았던 위원들은 제외한다는 말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문예재단 이사회, 제주예총, 제주민예총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짜여진다. 전선희기자

알림 한라일보 갤러리 ED 개관 기념 3인 초대전



한라일보는 오는 4월 18일 갤러리 ED 개관을 기념해 '제주, 제주너머' 3인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갤러리 ED 개관 첫 기획전에서는 포털 사이트 야후가 세계100인의 작가에 선정하고(故) 번시지 화백을 비롯해 제주를 대표하는 강승희, 채기선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입니다. 작품을 통해 수준 높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와 제주미술을 들여다보는 소통의 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한라일보 갤러리 ED 개관 기념 3인(번시지, 강승희, 채기선) 초대전
- 전시기간: 2020년 4월 18일 ~ 7월 17일
- 개관식: 2020년 4월 18일 오후 5:00
- 장소: 한라일보사 1층 갤러리 ED
- 문의: ☎ 064)750-2543



제주민예총 4·3청소년예술마당 청소년 기획팀의 수어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말뚫었던 4·3, 우리가 기억할게요”

제주민예총 4·3청소년마당 청소년기획팀 SNS캠페인 수어 활용 4·3의미 나눔

예술로 제주4·3을 세상 밖으로 꺼내온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 이곳에서 4·3미체험 세대인 청소년과 4·3의 만남을 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주민예총은 창립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4·3문화예술축전을 치러온 단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로 일정을 미뤘다.

이번 캠페인은 4·3문화예술축전 프로그램의 하나인 4·3문화예술한마당을 준비해온 청소년 기획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4·3문화예술한마당은 4·3이 전해주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대전승의 기회를 실현하는 자리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4·3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여러 방식의 예술로 표현하며 4·3의 정

신을 찾고 알리는 작업을 벌여왔다.

오현고 동아리 초점, 제주중앙고 발렌타인크루, 제주 청소년 연합 뮤지컬 동아리 등 청소년 기획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4·3을 추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SNS(<https://www.facebook.com/jejuculture>)를 이용한 '수어 챌린지 릴레이'를 기획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4월 한달 동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의 4·3은 푸르다'란 표어를 내건 청소년들의 수어 챌린지는 시각 언어인 수어로 4·3을 잊지 말자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4·3을 손의 움직임, 얼굴 표정, 몸짓을 사용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기획팀으로 활동하는 흥하민 학생(오현고 2)은 "수어 챌린지 캠페인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소년이 역사의 주체로서 4·3을 기억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2020년 '무당벌레 예술텃밭 프로젝트'인 '개똥이와 호박씨' 이미지.

도심 예술텃밭에서 먹고, 놀고, 느끼고

강술생 생태미술가 기획 '개똥이와 호박씨' 운영

흙을 살리는 개똥, 도심을 정화시키는 호박씨, 예술활동을 주제로 먹고, 놀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섬아트문화연구소(소장 김해근)가 '무당벌레 예술텃밭' 세 번째 프로젝트로 펼치는 '개똥이와 호박씨'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생

태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생태미술가 강술생 작가가 기획을 맡았다. 올해는 어린이들과 함께 도심 텃밭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민다. 2018년부터 강술생 작가와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고승희·고민경·박미경 강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개똥이와 호박씨' 프로젝

트는 6월 11~10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에 마련된다. 제주시 도남동 갤러리 비움, 무당벌레 예술텃밭, 이도2동 일대 골목 자투리땅이 주요 활동 장소다. 아이들은 동네 골목에 굴러들어 온 호박씨를 매개로 글 쓰고,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채집하는 등 저마다 역할을 분담해 역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월 15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EpSCdaHxbJi339rL6>)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010-4690-6148.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박물관 콘텐츠 온라인 학습에 쓰세요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 '온라인 배움터' 서비스 기존 영상콘텐츠 가공 원격 수업에 활용 가능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초·중·고 온라인 개학 시행에 따라 누리집을 통해 원격 수업이나 온라

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월 13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온라인 배움터' 서비스다.

이번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영상 자료들은 그동안 국립제주박물관이 진행했던 전시·교육·홍보 사업 분야에서 제작한 것들이다. 관람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재구성했다.

'온라인 배움터'에 올라온 영상 서비스 목록은 20개가 넘는다. 신석기 고산리식 도구, 고산리 화살촉, 섬나라 탐라, 철재 장검, 제주 우물, 탐라와 해상교류, 제주 수정사지 석탑, 삼별초 최후의 거점인 제주 향파두리성, 팔준도, 최부 표해록 샌드아트 영상, 탐라순력도, 장한철 표해록, 유배인의 시간, 목관아, 돌과 사람이 함께 한 탐라국 이야기, 말테우리의 하루, 산호 해녀, 제주를 다스리는 영동할망, 한라산을 오르다,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등이다.

박물관은 "코로나19의 재난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교사들의 원격 수업 자료 지원과 온라인 가정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배움터'는 국립제주박물관 동영상 채널(<http://www.youtube.com>)로도 이용할 수 있다. 원격 수업 등에 사용할 경우엔 국립제주박물관 출처를 표기해달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Agriculture & Nature

농업인이 믿고 쓸 수 있는 정직한 비료

제주비료

Agriculture & Nature

제주비료에서 생산하는 3종복합비료는 제주토양과 유용한 양질의 골분, 어분, 계껍질, 채종유박과 질소, 인산, 가리 및 붕소, 칼슘유황을 첨가하여 작물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유기배합비료입니다.

제주비료의 유기질비료
(엘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 1호, 유기농설피)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으로 믿음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감귤 전용비료

밭작물 전용비료

친환경 유기질비료 >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 Tel. 782-4985

NH 농업 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주)**